

# 사람이 본받아야 할 새의 생활

윤무부/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, 조류학자

**우** 리에게는 조류에 얽힌 전설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. 곧 흥년이나 풍년을 알리는 접동새(소쩍새), 반기운 소식을 전한다는 까치, 사람이 죽거나 흥한 일이 생김을 알린다는 까마귀, 장수를 상징하는 두루미(학),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같은 새들이 늘 우리나라 삶속에 등장하곤 했다. 또한 우리의 풍속 중 **월령사**에 새 목자이나 원앙 금침 따위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목적이거나 흥미로운 것이다. 즉 사랑을 상징하는 원앙새, 가정의 질서를 상징하는 기러기, 가족의 건강이나 장수를 상징하는 두루미(학)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여간 흥미롭지 않다.



고, 먹이 지키기, 둠지 지키기, 알 품기, 새끼 기르기 같은 일을 밥맛으로 한다. 우리 조상들은 신랑, 신부를 원앙새에 빗대어 늘 가까이에서 함께 있어야 사랑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들려주었다.

또 원앙새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랑하며 살라는 뜻에서 신부될 사람의 어머니와 그 집안의 모범이 되어 살아온 여인을 모셔다가 이불과 베개에 예쁘게 원앙새를 수놓게 했던 것이다.

높은 하늘을 보면 일자나 꺾쇠 모양으로 줄을 지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날아가는 새들이 곧잘 눈에 띈다. 북녘 땅 시베리아에서 월동지인 우리나라 남부 지방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무리를 지어 겨울마다 찾아드는 기러기이다.

날아가는 기러기 무리를 관찰해 보면, 맨 앞이 나이 많은 수컷, 그 다음이 새끼들, 맨 뒤가 나이 많은 암컷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 이렇듯 기러기는 가족간 질서의 상징이다.

건강한 수컷 가장 기러기가 이동할 때나 먹이를 먹을 때나 질서를 잘 지킴을 두고 조상들은 한 집안의 가장인 신랑의 역할을 강조했다.

그래서 예로부터 예비 신랑에게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이 산에 가서 단단한 나무 토막을 잘라다가 기러기 목각을 깎게 했고 신랑은 이것을 혼례 때 안고가서 신부에게 바쳤다. 신랑은 목각을 깎으면서 결혼 설계를 했을터이다. 곧 부부간 사랑, 효도, 일가 친척간, 이웃간 우애를 생각했을 것이다.

이렇듯 옛 어른들은 두루미처럼 건강하고 원앙새처럼 사랑하며 기러기처럼 가문을 훌륭하게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부부들에게 새의 지혜를 일러주었던 것이다.

두루미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살기 때문에 장수와 건강을 상징한다.

또한 한시라도 부부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저들이 낳은 새끼를 돌보며 데리고 다닌다.

이렇듯 두루미는 장수하면서 가정과 동료간의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인간사의 면면을 생각하면서 두루미를 떠올린 듯하다.

예로부터 신부의 혼수품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곧 원앙 금침이라 하여 긴 베개와 이불이 바로 그것이다. 이는 원앙새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원앙새가 우리 나라 수백 종의 새 중에서 부부의 금슬이 으뜸인 데서 비롯된 풍습이다.

아름다운 수컷 원앙새는 태어나서 한 해가 지나면 비슷한 연령의 암컷과 짝을 짓고는 평생을 암컷 곁을 떠나지 않고 산다. 암컷도 수컷을 떠나지 않